네 짐승이 빙의한 나 구하기

(다니엘 7:1~28)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네 짐승이 빙의한 나 구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네 짐승이 빙의한 나 구하기’
우리에게 빙의하려고 하는 네 짐승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빙의한 상태에 빠진 나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대한 꿈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주석학자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이를 해석하여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개인적 관점에서 인간이 가진 가치체계와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석학자들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며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이며 세 번째 짐승은 헬라이며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말씀은 설명이 아닌 해석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해석은 글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인지하기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독특한 환경과 처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부합하는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네 짐승의 꿈을 주석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다니엘의 환상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네 짐승의 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에 대해 다시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기에 이 연결을 끊는 더러움의 상태는 곧 악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결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든 바사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선민들의 사고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선민들은 유다 땅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됨을 통해 선민의 나라가 온 천지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써는 당연한 생각이지만 당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세계관이 뒤집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네 짐승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일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에 하늘의 바람이 몰려갔다는 것은 세상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악한 영이 활약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는 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과 대비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번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방인들이 단순히 하나님과 연

결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네 짐승이 들어가서 지배하는 상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짐승은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서 죄인으로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네 짐승에 빙의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죄인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짐승은 사람과는 독립된 외부의 요인입니다. 네 짐승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이고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나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하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오직 마음의 관심을 땅에 집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오직 땅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오직 땅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 병동에 심방을 갔을 때에 희한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 말기라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 회계장부를 잔뜩 쌓아두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면서 돈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가 아닙니다. 땅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짐승이 들어와 빙의되었기에 하늘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속물이었기에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한 마리의 짐승이 들어있어서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로 상징된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번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지정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통해 만물의 영장으로써 군림할 수 있는데 마귀는 이러한 지정의에 영향력을 미치며 인간을 짐승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속성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가 빠져버린 사자로 상징되는 마귀에게 빙의된 결과입니다.

5절에서는 두 번째 짐승의 묘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곰이 사냥감을 앞발로 내리치고 갈빗대를 물어뜯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곰에게 더욱 고기를 먹으라며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육체로 접하는 모든 대상을 먹잇감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배우자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사냥감이 됩니다. 또 부모에게는 자녀가 마음을 채우기 위한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기가 부모의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곰이 앞발을 들고 사냥감을 치고 갈빗대를 물어뜯듯이 아기를 통해서 마음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더라도 아기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단순히 타락한 상태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곰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빙의되어 세상의 모든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면 귀신이 들린 것은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모든 사람들이 네 짐승으로 비유되는 귀신에 빙의되어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이미 마음의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그를 통해 마음을 채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세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얼굴이 넷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방위를 의미합니다. 또 새의 날개가 넷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나온 독수리의 날개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표범에게 달린 새의 날개는 표범의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자는 달리는 모습보다는 바위에 걸터앉은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표범은 항상 달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대상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마음이 움직일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입니다. 곰이 당장 눈에 보이는 대상을 먹잇감으로 여겨 잡아먹는 마귀의 영향력을 상징했다면, 동서남북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표범은 미래를 향하게 하는 마귀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음으로 생겨난 마음의 부족감을 미래에서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1년 뒤에는 무엇을 해야지, 2년 뒤에는 무엇을 얻어야지, 3년 뒤에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지 등의 마음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꿈과 비전을 일컫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이고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범으로 상징된 마귀에 빙의되어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간 애인이 한 달 후에 돌아오기로 했다면 그리워하기를 한 달 뒤로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워할 수 없다면 애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 넷 달린 표범 같은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을 미래로 향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미래를 향하게 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지금 하나님과 연결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동물들과는 다른 사람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표범을 상징하는 마귀가 빙의된 마음에 생겨나는 특징입니다.

7~8절에서는 마지막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문제입니다. 짐승이지만 실존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고,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큰 말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앞서 세 짐승으로 묘사된 마귀가 들어온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첫째 짐승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마음의 모든 관심을 땅을 향하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 짐승은 육체로 접하는 모든 대상으로 하여금 마음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셋째 짐승은 마음을 미래를 향하게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편 이 마지막 짐승은 자연계의 짐승으로 묘사될 수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관심으로 삼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대적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 짐승의 관심이 땅에 있지 않기에 그 모습 또한 땅에 있는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넷째 짐승은 주로 적그리스도(Anti-christ)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에게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

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원론(二元論)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에는 이원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2절에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는 말씀처럼 마귀들조차 피조물로써 하나님의 주권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벌을 주시지 않고 사람의 인격적 결단이 마귀를 대적하여 벌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는 마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기에 적그리스도라고 칭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짐승들에 대한 언급 이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9~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심판자로써의 하나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빙의되어 살고 있는 네 짐승에 대한 삼판의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마귀에게 빙의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는 존재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섬긴다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섬기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큰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된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곳과 모든 세대에 적그리스도는 존재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그 무지함 자체가 죄악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19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을 부르는 자들 중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죽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이유는 하늘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점과 상통합니다. 포로로 잡혀왔든 고국에 있든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다니엘서가 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나 벨사살 왕의 글귀 해석이나 자기의 환상도 이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곧 이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끝난 사람의 특징은 오직 땅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땅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로써의 마귀에게 빙의된 상태입니다.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 하면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17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기뻐하신 후에 이어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영원한 타당성이 있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언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게 되었고 사탄이라는 꾸짖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설령 교회 건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마음의 관심을 보내는 동안 넷째 짐승에 빙의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석가들은 이를 역사적으로만 해석하여 BC.167년에 성전을 모독하는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로 여기기도 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 여기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모독했을지언정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귀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짐승으로 묘사된 이러한 마귀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끝나게 하고 인간의 지정의의 활동을 땅에 귀속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환상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요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네 짐승으로 묘사된 마귀의 빙의가 일어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이 가진 타락한 속성은 바로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이란 귀신들이 빙의된 상태를 즐기고 좋아하고 애착을 느끼고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상태입니다.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은 네 짐승으로 표현된 마귀에 빙의되어 나타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앞서 말한 세 짐승에 지배될 수는 있어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에 몰입해 있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이 넷째 짐승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한 네 짐승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독립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나 다 사자와 곰과 표범으로 상징된 마귀에게 빙의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몰입해 있는 자들 또한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된 마귀에게 빙의되어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느낀 두려움을 우리도 느끼게 하셔서 빈틈없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